Digital & IT

구글 '넥서스원' 공개

스마트폰 시장 3각구도 재편되나

가격 낮추고 노트북 성능에 검색 강화

국내상륙땐 아이폰·옴니아와 대격돌

〈넥서스원〉

〈아이폰〉

〈옴니아 2〉

검색 사이트로 유명한 구글(google)이 스마트폰 '넥서스원'(Nexus One)을 만들어 공개했다. 넥서스원은 다양한 검색기능과 노트북 수준의 성능 등을 갖추고 있어 국내 시장에 도입될 경우 아이폰·옴니아2폰 등 스마트폰과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트북 성능의 스마트폰 '넥서스원'=구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인 '마운틴뷰'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넥서스원을 공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제품은 많이 공개됐지만,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넥서스원은 구글 안드로이드 2.1을 채용하고 퀄컴 스냅드래곤 1GHz, 512MB 램을 탑재했다. 바(bar) 형태의 디자인으로 액정도 애플 아이폰보다 더 넓은 3.7인치 터치스크린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를 채택했다. 두께와 무게는 11.5㎜와 130g으로 아이폰(12.3㎜·135g)에 비해 더 얇고 가볍다. 카메라 화소수도 높고 플래시 기능을 갖췄다. 무엇보다 배터리 탈착이 가능하다.

넥서스원은 특히 검색기능이 강화된 폰이다. 검색버튼만 누르면 손쉽게 검색이 가능하며, 웹과 지도, 연락처, 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원된다. 번거롭게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할 필요가 없다. 구글의 장점인 음성검색이나 구글 맵스 내비게이션, 구글보이스 등이 통합돼 이들 기능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가격도 스마트폰에 비해 저렴하다.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구매하면 529달러(약 60만4천원),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업체인 T모바일에서 2년 약정을 맺으면 179달러(약 20만4천원)에 살 수 있다. 아이폰 3세대(3G)가 약정시 199달러(약 22만6천원)에 팔리고 있으니 조금 더 저렴한 셈이다.

◇국내 도입시 아이폰·옴니아 등 스마트폰과 대격돌=넥서스원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넓어지지만 아이폰과 옴니아2로 양분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아이폰이 도입된 후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급증했다. 아이폰은 지난해 12월 국내 전체 휴대폰 판매량(약 193만대)의 10%를 넘는 19만6천대를 판매하는 등 현재까지 20만대 이상 팔렸다. 지난해 12월 초 KT의 번호이동(MNP) 점유율이 57.4%로 급상승하는 등 아이폰 효과를 크게 봤다. KT는 아이폰 효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쇼옴니아폰의 대대적인 마케팅과 함께, 올 상반기 2종의 안드로이드폰을 출시할 계획이다.

T옴니아2도 아이폰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판매량을 지난해 말 기준 18만5천여대로 높였다. 이에 SK텔레콤은 올해 선보일 50여대의 휴대단말기 중 스마트폰을 최대 15종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넥서스원 출시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국내에 도입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 주력산업 경기변동폭 크다

자동차·가전 내수경기 민감 탓… 서비스업 등 육성해야

광주 지역 제조업의 주력인 자동차·가전산업의 경기 변동성(경기 침체와 활기에 따른 등락폭)이 전국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문화산업 등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최근 광주·전남 지역 제조업 경기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제조업 생산을 분석한 결과 경기순환 변동치 표준편차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경기변동성이 광주의 경우 9.2로 제주(9.6)를 제외하고 전국(평균 4.6)에서 그 등락폭이 가장 컸다. 전남(3.7)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광주의 주력산업이 자동차(35.3%)와 전기장비(14.4%) 등 내수 경기에 민감한 내구재 위주로 구성된 데다 타 지역에 비해 자동차산업의 제조업 내 비중이 높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남의 낮은 제조업 변동성은 주력업종인 화학, 1차금속 등의 생산이 내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역 경제정책을 수립할 경우 전국적인 경기 지표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경기지표를 개발해 지역경기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률이 높은 전략산업과 안정적인 기반산업을 조화롭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서비스업 등 꾸준하게 성장하는 산업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주유소 휘발유값 내렸네!

ℓ당 0.85·1.56원 하락

전국 평균가는 오름세

새해 들어 전국 주유소 판매 휘발유값이 오름세로 돌아섰으나, 광주·전남 지역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5일 마감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644.89원이다.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15일 ℓ당 1,658.10원으로 단기 고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내렸다가 지난달 28일 ℓ당 1,637.17원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 연말에 ℓ당 1,640원대로 올라섰다가 1원 이내에서 등락하던 휘발유값이 이번 주 들어 이틀 만에 ℓ당 3.86원이나 올랐다.

반면, 광주 지역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말 ℓ당 1천618.97원에서 5일현재 1천618.12로 0.85원 하락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1천624.73원이었으나, 1천623.17로 1.56원 내렸다.

정유사 관계자는 "두 달 가까이 지속했던 국내 기름값 안정세가 최근 원유값 상승에 따른 국제 석유제품가 인상 등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탓에 광주·전남지역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식품위생업소에 최고 5천만원 저리 융자

광주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두 10억5천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금리 1~3%의 장기저리로 융자해 준다. 대출 상한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고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3천만원 등으로, 지역 내에서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만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은 1년 거치 후 3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강증진과(613-4383) 또는 관할 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금융사 '보너스 잔치' 규제

성과급 3년이상 분할 지급

금융당국 '모범규준' 마련

올해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 한다. 이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로 이어져 금융 부실을 가져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진은 예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보험협회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규준은 국내 18개 은행과 7개 금융지주회사에 모두 적용된다. 증권사는 10곳이, 보험사는 6곳이 적용받는다.

/연합뉴스